세계가 찾는 말차 '보성차 제2부흥기' 본격 시동

군, 스마트 생육관리 시스템 구축 등 재배 환경 현대화
식품·제과·제빵·음료·주류 등 가공식품시장까지 확대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군이 '보성차의 제2부흥기'를 향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서고 있다.

14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지역은 국내 차 생산량의 34%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80억원을 투입해 재배 환경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생육 관리 시스템 구축, 평지형 다원 조성, 기계화 수확 확대, HACCP 기반 가공시설 확충 등 생산 전반을 과학화·표준화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유기인증(유럽·미국 기준) 면적을 80ha까지 확대해 고품질·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를 완비했다.

국내 농업이 직면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속에서도 군의 기술 혁신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2014년 100.3kg에서 2024년 127.8kg으로 약 27% 증가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세계적인 말차 수요 증가로 보성산 차 수출량은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은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한중 정상회담' 만찬 후식으로 '보성녹차'가 공식 제공되며 국제적 신뢰도가 다시 한 번 확인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보성산 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군은 온라인 플랫폼(보성몰·우체국쇼핑 등)을 통한 비대면 판매 확대, 전국 박람회 참가,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해 왔다.

이 같은 유통 기반 확충과 말차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말차와 함께 녹차 제품 전반의 판매가 급증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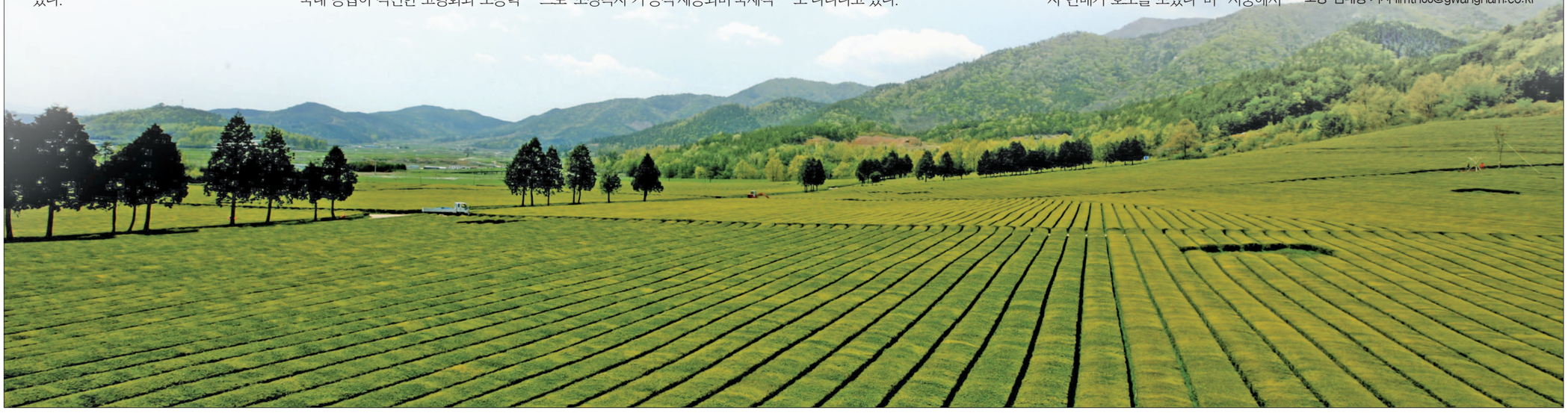
실제 최근 5년간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에서는 연평균 약 130t의 찻잎을 수매해 이중 약 80%를 판매하고 나머지는 재고로 유지해 왔다.

올해는 총 246t을 수매했음에도 전량을 즉시 판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년도 이월 재고 또한 모두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차 구하기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서상균 보성차생산자조합장은 "올해는 조합 창고에 재고가 남지 않을 정도로 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며 "시중에서도 말차를 포함한 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해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 차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보성의 대표 산업이자 유산이다"며 "말차 열풍과 세계 식품 시장의 변화는 보성에 다시 찾아온 절호의 기회이므로, 보성차의 제2부흥기를 실현해 녹차수도 보성의 위상을 세계 속에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전시관 추억 여행' 무료 운영

2026년 1월 1일부터 리모델링 착공 전까지 진행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이 내년 10월 시작될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 현재 전시관의 모습과 죽공예의 기록을 군민과 관람객에게 다시 소개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착공 전까지 '전시관 추억 여행' 무료 관람 기간을 운영한다.

1981년 죽물박물관으로 개관한 한국대나무박물관은 2003년 리모델링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춘 이후 큰 변화 없이 대나무 생태와 죽공예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이어왔다.

박물관은 수십 년간 이어진 공간의 흔적이 본격 공사로 사라지기 전에 누구나 현재의 전시와 공간을 마지막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무료 관람 기간을 마련했다.

무료 관람 기간 관람객들은 박물관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오랜 기간 소장해 온 작품과 전시 공간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지역민들에게는 오랜 시간 일상에 자리해 온 박물관의 모습을 다시 마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은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미디어 전시물, 전망시설, 도서관, 휴게공간 등을 갖춘 현대적 공간으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통 대나무공예 문화를 이어가는 국내 유일의 대나무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문화 거점 역할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무료 관람을 통해 많은 분들이 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고, 새롭게 변화할 공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리모델링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환경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gwangnam.co.kr

박물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착공 전까지 '전시관 추억 여행' 무료 관람 기간을 운영한다.

고흥군은 최근 전남도가 주관한 '2025년 귀농어귀촌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흥, 귀농어귀촌 종합평가서 '최우수상'

10년 연속…인구 유치·안정적 정착 등 고평가

고흥군이 지역사회 정착과 융화에 앞장선 노고를 인정 받았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가 주관한 '2025년 귀농어귀촌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이번 수상으로 10년 연속 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귀농어·귀촌 인구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분야에 명실상부한 으뜸 지자체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어·귀촌 관련 사업 추진 실적과 귀농어·귀촌인 유입 실적 등 10개 항목 16개 평가 지표의 세부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귀농어·귀촌인 교육 △귀농어·귀촌 지원사업 추진 실적 △귀농어·귀촌인과의 소통 활동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와 지적 측량비 지원을 비롯해, 읍면 단위 간담회 등 정기적 소통 강화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농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광양, 내년 국·도비 6505억 확보

올해보다 476억 증가…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

광양시는 내년도 국·도비 예산을 올해보다 476억원(7.9%) 증가한 6505억원을 확보했다.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정부·전남도 지원사업)을 보면 광양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33억원(총사업비 65억원), 전남 광양 제조창업 공유공장(스케일업 실증센터) 구축 설계비 5억원(총사업비 300억원), 미래 이차전지 원료소재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 23억원(총사업비 220억원), 백계산 천년동백정원 조성 10억원(총사업비 19억원),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4억원(총상업비 5억원), 용강·구산 등 3개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4억원(총사업비 470억원),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 21억원(총사업비 43억원)이다.

또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미반영 됐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이끌어낸 사업은 철강·금속 디지털전환(AX) 지원센터 구축 28억원(총사업비 220억원),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 35억원(총사업비 380억원),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 2억5000만원(총사업비 52억원),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9억원(총사업비 196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계속사업 예산은 수소도시 조성사업 5억원(총사업비 400억원), 공립 광양소재전문 과학관 건립 60억원(총사업비 400억원),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34억원(총사업비 144억원),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사업 5억원(총사업비 36억원), 광야 힐링 수변길 조성사업 8억원(총사업비 34억원), 섬진강 속 빛나는 윤동주의 별빛 아일랜드 조성 5억원(총사업비 145억원),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5억원(총사업비 81억원),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사업 12억원(총사업비 59억원),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20억원(총사업비 150억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전 직원이 협력해 확보한 재원은 적재적소에 투입될 예정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

곡성, 농촌공동체회사 우수 지원사업 점검

공공자금 건전한 운영체계·사업 신뢰도 확보

곡성군은 최근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행점검을 농촌공동체회사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공동체회사의 사업을 지원해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령자 일자리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이행점검은 공공 자금의 건전한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이 당초 사업 목표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선정된 2개의 농촌공동체회사가 보조금을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게 사용됐는지, 관련 증빙 자료 구비 여부 등 보조금의 사업 목적과 부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보조금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농촌공동체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향후 곡성군은 이번 이행점검 과정을 통해 농촌공동체 보조금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여수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10기 운영자 모집

22일 여수문화홀 현장 접수…최종 18명 선발

여수시는 지역 대표 관광콘텐츠인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10기 운영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18명이며,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11일) 기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신청인 본인과 직계혈족·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며느리(사위)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수문화홀에서 현장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지원자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

여수시는 이번 운영자 모집에서 평가 방식을 일부 조정했다.

기존에는 1차 서류평가에서 인근지역 3명, 청년 7명, 일반시민 5명, 사회적약자(차상위, 장애인, 다문화·북한이탈주민) 3명으로 계층별 선발인원의 3배수를 선정한 뒤 2차 음식품평회 평가에서 계층별 최종 18명을 선정했다.

올해는 1차 서류평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2차 음식품평회 평가에서 '일반 15명(인근지역·청년·일반시민)'과 '기타 3명(사회적약자)' 두 유형으로 구분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18명을 선정한다.

최종 선발자는 위생교육 등을 이수한 후 내년 4월부터 1년간 낭만포차를 운영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낭만포차 음식의 맛과 품질 향상을 위해 역량 중심의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실력 있는 운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